

VOL.5

KOREA COAST GUARD NEWSLETTER
2024. 12

해경IN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소식지

바다의 블랙홀
위험천만한 레트라포드
올라가지 마세요!

해경IN

해양경찰 + IN(인)의 합성어로 해양경찰의 다양한 정보와 사람을 나타내며,
영어 IN은 Internet(인터넷, 온라인), Information(다양한 뉴스와 정보) 등
앞으로 해양경찰이 나아갈 꿈과 희망의 100년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자는 뜻입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Contents

발행처 해양경찰청 | 발행연도 2024년 | 주소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로 3-8)
홈페이지 www.kcg.go.kr | 제작 매드 031-442-227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04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HOT NEWS

05 2024년 상반기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 월간 민원 만족도 조사
- 체감안전도 조사

06 “해양경찰 감사합니다”

- 해양경찰에 감동한 국민과
감동을 선사한 직원 인터뷰

10 '24년 하반기 국민만족도 향상 우수사례

-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로 해양 안보
및 어민 생업 보장
- 바다에서의 구조신호, AI가 즉시 응답한다!
- 폐 홑줄의 새로운 탄생
- 서해 만도리어장 규제 완화로 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 인명구조함 위치를 쉽고 빠르게!
인명구조함 전자지도 제작

15 '24년 하반기 국민만족도 향상 개선사례

- “낚시인구 1,000만 시대” 낚시어선
출항 신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다
- “수상레저기구 보험만료 알림”
해양경찰에서 미리 알려드려요!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디지털
공증문서 발급 개선

18 '24년 해양경찰청 조직문화 콘테스트 우수사례 소개

19 (이벤트) 해양경찰 퀴즈 십자말풀이

「해경IN」 5호 표지이야기

겨울철에는 방파제, 테트라포드 표면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시 탈출과 구조 활동이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바다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테트라포드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든 소식지 「해경IN」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품고 달려온
해양경찰이 어느덧 2024년의 끝자락에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71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관심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나침반이 되어,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1,470명의 '국민패널'과 함께
논의하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패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설문조사로는 알기 힘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집단 심층토론'을 진행하고, 소통간담회, 홈페이지 구축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해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주요 정책지표에서 우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K-정책소통 공모전(최우수상)', '청년정책·정보사업 기획조정
우수기관 선정' 등 눈에 보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식지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라 더욱 뜻깊습니다.

'24년 하반기 해양경찰의 다양한 소식과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의 모습과 성과를 담았으니 많은 관심과 가감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에는 잦은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해양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새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희망차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성식

7월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초청연수 실시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15명의 초청연수(7.22~8.1)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조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골자로 한 본교육은 인도네시아의 해양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3년차 적극행정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월 바다에선 구명조끼 캠페인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 구명조끼 착용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출입구와 마트 계산대 화면 등에 구명조끼 스티커를 부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8월 해경교육원, 여수 청사 개청 1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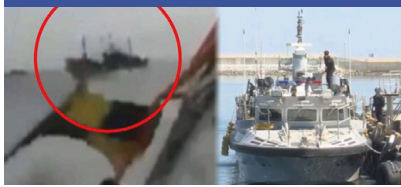


해양경찰교육원이 올해 여수 청사 개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육원은 해양경찰관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신입 직원들의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해양특화 외부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퇴역해경 경비함정 2척 베트남에 양여



9월 꽃게철 맞아 중국어선 급증, 해경 단속 강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조업량이 급증하는 9월, NLL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7~8월 60여척에서 9월 초 140여척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해경은 500톤급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여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제 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 회의(HACGAM) 개최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인천 영종도에서 20여개국 아시아 해양 치안기관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범죄 공동 대응 및 수색구조 협력을 위해 각 나라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 개불 펌프, 작살총 등 불법 어구 단속



불법 어구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유통망을 특별 단속하였습니다. 시가로 약 1억 5천만 원(총 8,800여점)에 달하는 불법 어구는 개불 펌프와 작살총 등으로 해당 기구를 제작, 보관한 창고 8곳을 압수수색해 9명을 입건하였습니다.

해양경찰은 퇴역한 100톤급의 경비함정 1척과 25톤 경비함정 1척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양여하였습니다. 이번 양여는 지난 6월 체결된 해안협력약정의 후속조치로 개발도상국의 해양 안보 협력과 선박 수리를 통한 중소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전국 최대 관제구역 제주광역 VTS 개국



제주 해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제범위가 기존 890km에서 7,800여km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제주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해양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정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경찰청이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바다에서 발생하는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확산가능성과 적극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2년 4개월만에 경사-경위최고속승진



연공과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심사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도입하여 경사 계급인 5명을 경위로 선발하였습니다. 승진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축소한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로 조직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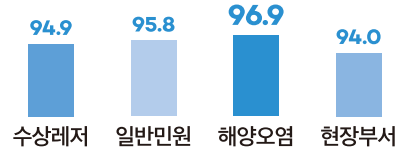
해양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매월 해양경찰 서비스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해양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볼까요?

'24년 상반기 치안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 | 해양경찰 서비스를 받은 국민
조사횟수 | 6회(월 1회)
응답자수 | 8,342명 / 55,327명
조사결과 | 93.9점 *전년도 대비 1.5점 상승

치안서비스 업무별 만족도



2024년도

국민패널(바다소리) 운영 결과

해양경찰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22년 11월부터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양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소통창구입니다. '24년도에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기존 332명에서 1,47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해양경찰과 함께한 국민패널의 활동상에 대하여 함께 보실까요?

1. 패널 설문조사

해양경찰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8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 설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5월 | 해양경찰 상반기 인식조사

7월 |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주요정책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

8월 | 수상레저사업장 요양게시 및 신고 관련 의견조사

10월 | 해양경찰 하반기 인식조사,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11월 | 해양구조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만족도 조사

12월 | 개혁과제 이행 관련 대국민 만족도 조사



3. 홈페이지 운영

올해 처음으로 구축한 '국민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해양경찰에 대한 다양한 정책정보,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4행시 공모전'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패널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고도

화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집단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단심층토론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주제) 경찰관 채용 체력평가, 채용시험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조희

* 집단심층토론이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대상자 6~8명을 대상으로 사회자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조사방법

4. 소통간담회

해양경찰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견학과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패널들이 해양경찰 업무를 경험하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해소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도와주신 해양경찰관님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우도에서 복통을 호소하여 육지로 이송된 국민 인터뷰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도에 살고 있는 사랑이 엄마 고민솔입니다.

작년부터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러 우도에 와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Q 평소 해양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육지에 살고 있을 때는 실제로 접한 적이 없어 해양경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도에 살면서 긴급하게 다치거나 기상이 불량할 때 해양경찰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남편이 일이 있어 잠시 애들하고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복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 아이가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경의 구조정을 타고 육지로 가던 중 고통을 참기 힘들어 저도 모르게 옆에 계신 경찰관님의 손을 계속 짚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째기도 하고 피가 통하기 힘들만큼 잡고 있었는데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계속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걸어주시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Q 귀하께서 느끼기에 해양경찰 신고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나요?

A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파출소에서 도착하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신고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만족하시거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다른 해양경찰 직원분들도 국민을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저를 도와주신 경찰관님을 진심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저를 위하는 마음이 전해졌고, 덕분에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응원 또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을 당시 바람도 많이 불고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해양경찰 직원분들이 국민을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지나가거나 뵈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간단한 인사라도 건네면서 감사함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 경장 이용주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19년 12월에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4년 11개월째 근무 중이며, 현재 서귀포 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이용주입니다.

Q 사건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A 근무하던 중 현장상황관리 시스템이 울리며, 우도 응급환자를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즉시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S-83정)에 직원 3명과 함께 승선 후 긴급출항하여 우도 천진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환자분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고, 거동을 하지 못하셔서 들것을 이용하여 119대원으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았습니다. 구조정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분께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료적으로 고통을 해소해드릴 방법을 찾지 못해, 조금이라도 환자분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손을 잡아드리면서 “금방 병원에 도착한다고, 저희가 꼭 구해 드릴테니 걱정마시라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라는 말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Q 상황처리를 하면서 느낀점 및 해양경찰로서 앞으로의 각오 및 다짐 부탁드립니다.

A 해양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구조 임무를 한 것이지만, 이렇게 감사를 표해주셔서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근무하면서 업무역량을 향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재현 사진



"해양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기관고장으로 안전관리를 받은 국민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전남 목포에 거주 중인 김재우라고 합니다.

Q 평소 해양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의 재산과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매번 단속하는 모습을 자주 봐서 그런지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다가 귀가할 시간이 되어서 엔진에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장에 배를 묶어둔 상태라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처음 당해 본 일이라 불안했었습니다. 다행히 면허 취득할 때 배웠던 안전 수칙과 위급 시 대처 방법이 생각이 나서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당시 해양경찰 신고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A 119로 신고를 하자마자, 30초도 안되서 바로 해양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위치를 물어보더니 즉시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제 보트가 있었던 곳의 근처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수시로 전화로 위치를 물어보시면서 신속하게 구조하러 오셨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제 안위를 걱정해주시면서 어떻게든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근처에 있는 선박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근접 위치에서 구조정으로 안전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단속만 하는 모습만 보았던 해양 경찰관 이미지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귀하께서 해양경찰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제가 구조된 곳이 중마도 인근(해남과 진도관할 경계지역)이라 해당 관할 뿐 아니라 다른 관할 지역도 경우에 따라 보트를 인양할 수 있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응원 또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밤낮으로 힘 써주시는 해양경찰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해양경찰관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바다 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 경장 윤세호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 땅끝파출소에서 순찰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장 윤세호입니다.

Q 사건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A 야간근무를 서고 퇴근하기 전 파출소 장비점검 및 인계인수 업무 준비를 하는 중에 파출소로 중마도 인근에서 기관 고장 선박이 있다는 신고 지령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예인선, 화물선 항로이고 양식장이 많은 지역이라 신속하게 출동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신고자와 계속 통화하며 안전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다행히 선체 파공이나 침수 등 큰 위험 상황 없이 배터리 방전으로 확인되어 연안구조정으로 계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배터리 시동을 걸기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원인 미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선박을 동원해서 선박을 진도 용호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입항 시까지 근접거리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Q 상황처리를 하면서 느낀점 및 해양경찰로서 앞으로의 각오 및 다짐 부탁드립니다.

A 신고자는 갑작스레 시동이 걸리지 않아 매우 당황해하며 넓은 바다에 고립되어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해양경찰에 수시 정보 제공 등 신고자가 당황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안정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양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구조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렇게 국민께서 감사함을 표현해 주셔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바다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재현 사진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로 해양 안보 및 어민 생업 보장



추진배경

어업인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가 지속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어업안보로 인식하라!”는 엄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추진노력

① 특별단속·합동순찰

꽃게 성어기 등 시기별 특별단속*(3·9·10월)을 실시하였으며,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경비세력 증강(5→7척) 및 유관기관 합동순찰(2회) 실시
하였습니다.

* (상반기) 나포5척, 퇴거·차단58척/(하반기) 나포4척, 퇴거·차단48척

② 역량강화

등선방해물에도 안전하게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함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비비(6.3억)를 확보하고, 단속 경연
대회 개최(9월), 합동훈련(해군2회, 어업관리단2회)을 통해 업무역
량을 제고하였습니다.

③ 외교적 노력 등

한·중 외교회의(3회)를 통한 중국정부의 자정 노력 촉구 및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부처(해수부, 대검찰청) 협업을 통한
신규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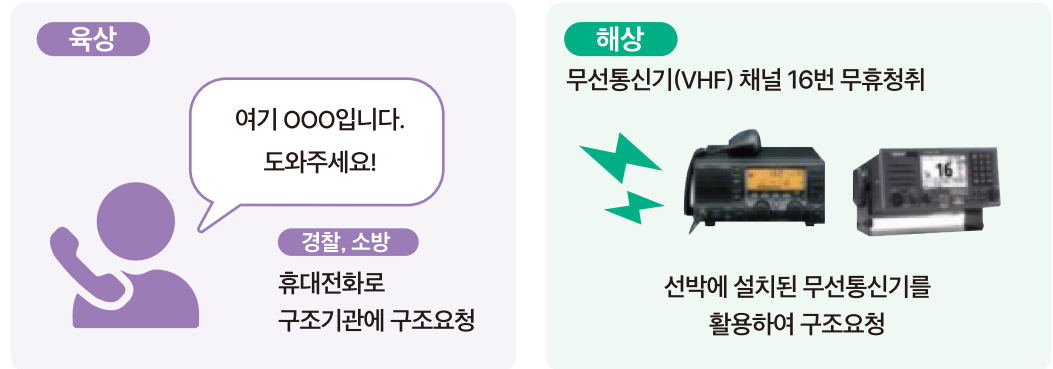
강력한 단속 노력 효과로 올해 조업질서 위반율은 지난해 8.8% 대비 15%(1.3%P) 감소하였고, 최근 3년 평균
9.7% 대비 23%(2.2%P)▼ 감소한 7.5%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업질서 위반율 중국어선 100척 중 몇 척이 법령상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백분율(퍼센트)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조업질서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

또한 우리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 25.5톤(99,300kg)을 적발하여, 약 61억원* 가치의 경제손실 예방
하였습니다. * 불법 범장망 어구 1톤당 참조기 등 평균 2.4억원 포획 가능(해수부 추산)

바다에서의 구조신호, AI가 즉시 응답한다!

2024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작



추진배경

바다는 육상과 달리 통신이 미약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통신망'이라는 통신기기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망은 일반 휴대전화와는 달리 파도, 바람 등 기상 영향을 많이 받기에 잡음을 동반하는 등 음질이 불량하고, 무선통신망을 청취하는 인력 한계로 조난신고를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고접수 한계 속 구조기관 통신기기에 AI를 접목하는 적극행정에 도전.

개선내용

무선통신을 통해 접수되었던 해양 조난신고 키워드를 수집하여, 영어 한글 버전, 사투리 등을 파장으로 변환 후 AI 학습 데이터로 가공하여 전국 최초 '해양 긴급 조난신호 자동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청각'으로 청취하던 조난신호를 'AI'로 인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난상황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 확산 및 세계 최초 해외 PCT 출원으로 국가 안전 체계의 강화와 해외 진출 가능성을 마련하였습니다.

폐 핫줄의 새로운 탄생

평택해양경찰서 시행



추진배경

매년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핫줄(배를 일정한 곳에 묶을 때 쓰는 굵은 두께의 줄)은 수십 톤에 이르며,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가의 처리비용이 들고 있어 재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 핫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

개선내용

연안구조정 및 도선, 낚시어선 승하선 장소(푼툰)에 핫줄을 재활용하여 안전매트를 제작하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여 승객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특히 형광페인트로 도색하여 이른 새벽 및 야간 낚시어선과 도선 이용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 핫줄을 재활용한 계류시설 안전매트 설치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



설치 후

서해 만도리어장 규제 완화로 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만도리어장이란?

위치 | 인천 장봉도 서방(북방한계선 9.5마일 거리)

개장기간 | 3~11월, 성어기 日 평균 50척 이용

주요 통계(최근 3년 연평균)		
입어척수	어획량	어획고
5,153척	1,176,400kg	약 42억

추진배경

만도리어장은 법 개정('85.7.)으로 출어요건이 완화되었으나, 단지 접경해역이라는 이유로 출어등록·점호 등 특정해역*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간조업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어업인 등 민원이 지속되었습니다.

* (특정해역)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만도리어장 주요규제) 출어등록 점호, 일반교육외 특별교육 이수, 야간조업 금지 등

→ 해경 해군 지자체 해수부 등 서해조업보호협의회 소속 관계기관 개선안 논의

개선내용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 완화 적정성 심의 의결*('24.11월)을 거쳐, 11월 서해조업본부 조업보호협의회 의결로 규제 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구 분	기 존	개 선
조업시간	주간조업	자율적 조업
교 육	특별 및 일반교육 이수	일반교육 일원화
점 호	시각점호	통신점호 대체

만도리어장에서의 점호, 교육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조업환경이 개선되고 어업인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인명구조함 위치를 쉽고 빠르게!

인명구조함 전자지도 제작 목포해양경찰서 시행

추진배경

인명구조함 특성상 고유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과 안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민과 관광객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인명구조함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였습니다.

→ 국민 누구나 인명구조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모색

개선내용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지도' 앱의 위치저장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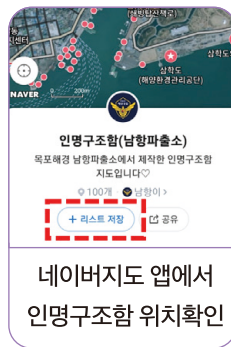
관할구역 내의 인명구조함(100여개) 위치정보를 저장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 저장(☆) 기능을 연계한 'QR코드'를 활용하여 위치정보들을 단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지도'의 위치정보를 선택하면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인명구조함을 찾을 수 있으며,

최적 이동경로와 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만족도 개선사례 1

“낙시인구 1,000만 시대” 낙시어선 출항 신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다

국민 불편사항

“거의 매일 출항을 나가는데, 수기로 신고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출항 신고 때마다 파출소에 줄을 서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는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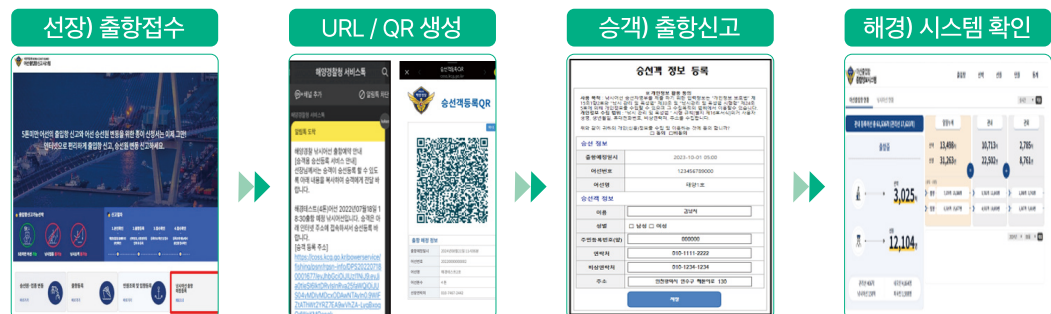
‘낙시인구 1,000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시어선의 경우 별도의 승객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탑승을 진행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필체에 따라 식별이 난해한 경우가 빈번하여 사고 발생 시 구조업무를 지연시킬 개연성이 존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내용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확한 승객 명부 확보로 신속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구분	기존	개선
선장	승객 명부 작성 받은 후 해경 제출 (수기 승객 명부 3개월 의무 보관)	핸드폰 웹페이지를 통해 출항 접수 (수기 승객 명부 보관 불필요)
승객	낙시어선 탑승 시 승객 명부 작성	URL로 미리 승선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탑승
해경	선장이 제출한 승객 명부를 시스템 별도 입력	시스템에 자동 업로드된 선장·승객 정보를 상시 확인



국민만족도 개선사례 2

**“수상레저기구 보험만료 알림”
해양경찰에서 미리 알려드려요!**

국민 불편사항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놓칠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보험을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나 국가에서 갭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배경

동력수상레저지구 소유자는 등록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보험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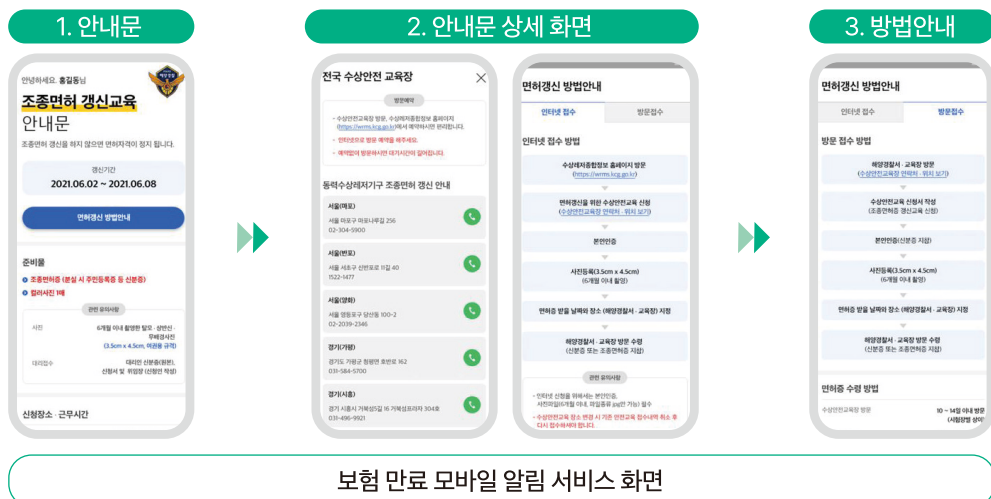
* 수상레저의무보험의 경우, 자동 갱신이 아닌 1년마다 소유자가 직접 갱신 필요

개선내용

수상레저의무보험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보험개발원 업무협의, 법 제도 마련을 통해 통합 보험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 운영 등)

또한 민간 앱(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수상레저 의무보험 모바일 사전 안내 제공으로 국민께서 보험 미강신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국민만족도 개선사례 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디지털 공증문서 발급 개선

국민 불편사항

“국제자격증인데도 요트를 타고 해외로 가려고 해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해외에서 레저기구를 다기 위해 영문 번역, 공증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력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국가자격증임에도 국내 인증으로 한정되어있어, 해외 활용(여가, 취업)을 위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번역공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노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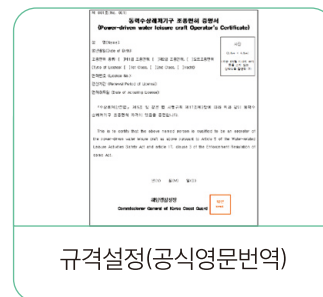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의 해외 활용을 위해 영문번역, 공증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없애고, 범부처 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발급·활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시스템(수상레저종합정보, 정부24)을 마련하였습니다.

***규격설정·영문 번역('21.7.12.), 법 근거조항 신설('23.7.6.), 외교부 업무협약('24.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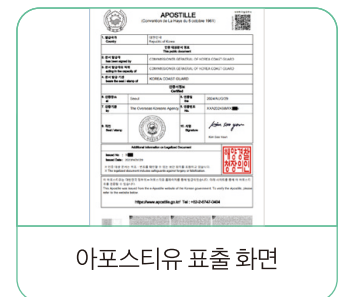
구분	기존	개선
발급절차	발급→영문번역→재외동포청확인→주한공관 확인→발행 국가의 공문서로 인정	발급→조회 출력→발행 국가의 공문서로 인정
발급기간	최소 7일	즉시 발급
비용	번역공증 비용 15만원	수수료 무료



아포스티유 접속 화면



규격설정(공식영문번역)



아포스티유 표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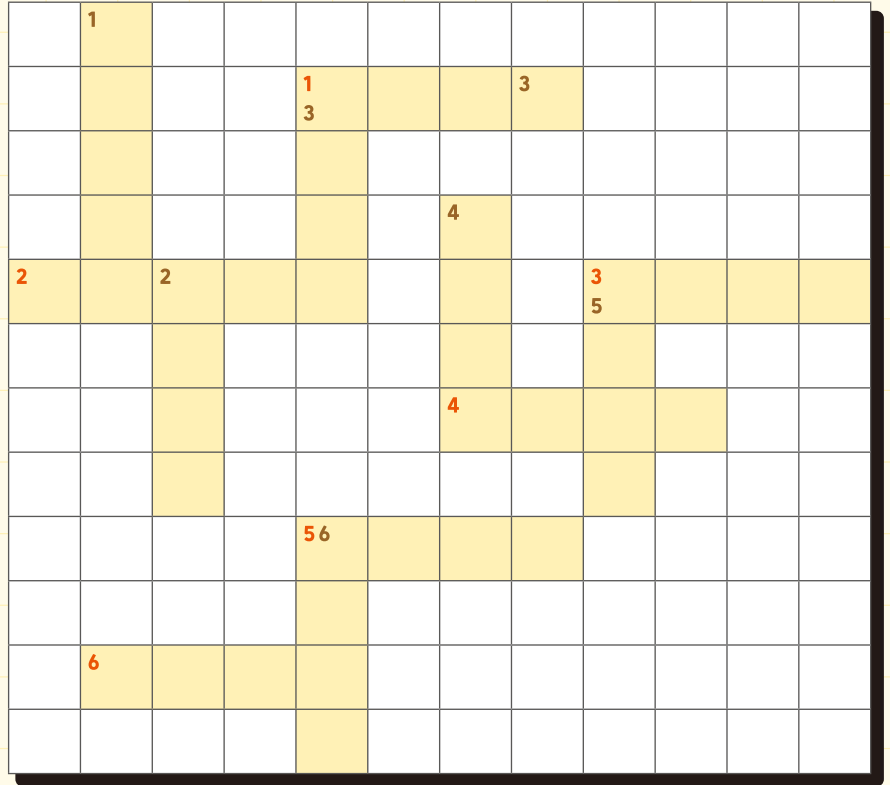
“이제 조종면허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국민께서는 해경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시스템과 범정부 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24년 조직문화 콘테스트 우수사례 소개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공무원 적응지원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개 분야에 대한 '24년 해양경찰 조직문화 콘테스트를 진행(10.2~11.20)하였습니다!
과연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문제 극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직에 맞는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서귀포서 경위 염기암)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기관간 크로스미팅 추진 (중부청 경위 안진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시간 사용률 성과 지표화 2 신혼부부, 다자녀 인사 혜택 마련 3 결혼·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신설 4 출산 여성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추가 운영 	<p>유관기관과 업무적 소통을 탈피한 친선교류의 장을 통하여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유관기관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통해 열린 조직문화 형성</p>	
지휘관 '출산 직원 격려하기' 운영 (동해청 경사 정은우)	가정일이라고요? 그는 또 다른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포항서 경감 윤해진)	
<p>본인·배우자 출산 시 축하장, 축하 기념품(돌미역 및 상품권)을 지휘관이 직접 부서를 방문하여 친수 ⇒ 지휘관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소속감 고취 및 조직문화 형성 기여</p>	<p>십 여년 전 아내가 유산하면서 겪었던 당시 해양경찰 직장문화 소회를 떠올리며 작성한 기고문 ⇒ 생명의 소중함과 직장 내의 분위기가 선행되어야만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전달</p>	
혁신파이어나너(혁신선도그룹) 우수사례		
한반도 끝자락, 완도에서 혁신의 서막을 열다 (완도서)	조직문화 개선 선봉장에 서다 (군산서)	미래를 향한 변화의 물결! 혁신의 첫걸음! (통영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혁신 선구자 모임 "완도혁신 बैं크" 추진 2 "완도 빙그레 씬터" 설치 3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문화 형성 4 청렴 "클린 텀블러" 콘테스트 5 고향사랑→ 해양안전 확산 "벨트형 구멍조끼" 답례품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혁신파이어나너 소통모임 추진 2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AI 기반 솟츠 제작, 민관 함께하는 핫플 뱃길 프로젝트, 핵인싸 프로젝트) 3 직원 부서 국민 사진 서비스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혁신 아이디어 제시 및 과제 정책 반영 2 "밸런스 워크(Balance Work) 360" 조직문화 개선 정책 추진 (집단유연근무, 유연하게 사복입는날 지정, 우수직원 선발) 3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 마련
국민만족도 우수 사례		
야간 등화 위치부이 제작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통영서 경사 안창명)	국민 맞춤형 법규교육으로 국민만족도 UP! (부산항 VTS 순경 정영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청소년 맞춤형 홍보활동' (부안서 8급 김민영)
<p>'24년 남포항 인근해상 간출암에 좌초선박 지속 발생으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민간해양구조대(드론수색대) 활용 지리적 특성 파악, 주 야간 시야확보를 위해 위치부이에 태양광등, 야광테이프 부착하여 설치</p>	<p>해상교통법규 교육·홍보를 통한 법규 준수 및 해양사고 예방 필요 ⇒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법규 내용을 음악에 담은 AI영상 콘텐츠 자체제작 및 적극적인 확산 활동 추진</p>	<p>부안 고창해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환경 보호 인식 미흡 ⇒ 청소년 대상 교육 홍보 총 20회, 1,043명 실시(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교육 기회 확대)</p>



가로퀴즈

1. 조난한 배가 구조를 청할 때 하는 것으로, 국민만족도 항상 우수사례 중 통신기기에 AI를 접목하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전해오는 이 신호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였다.
2. 해양경찰의 소속기관이자,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24년 기준 전국에 20개소가 위치하여 있다. 관할 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파 출장소, 경비함정,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다.
3.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으로 해양쓰레기 중 이 물질은 85%를 차지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것으로, 최근 이 물질의 심각성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4. 탄소 종류 중의 하나로, 어패류 잘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2019년 IPCC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된 것으로 뛰어난 탄소 흡수능력을 가지고 있다(00카본)
5. '바다의 안전벨트'로 바다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착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에서 7월에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수상에서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 방법으로 일반적인 수영과 다르게 물 위에서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머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로퀴즈

1. 아시아 해상에서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수색구조 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력협의체로, 9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 영종도에서 00000치안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20여개국 해양 치안기관장들이 모여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 해상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해양경찰은 올해 8월 은퇴한 2척을 베트남에 무상양여하였다.
3. 국민만족도 항상 우수사례 중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로 이 지표는 지난해 대비 15% 감소하였다. 중국어선 100척 중 몇 척이 법령상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0000위반율 이라고 한다.
4. 1982년 씨앗사에서 개발한 보드게임 중 하나로 아폴로 계획 중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찍은 사진의 제목에서 따온 블루마블(Blue Marble)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5. 긴 천에 표어따위를 적어 양쪽을 장대로 매어 높이 들거나 길 위에 달아 놓는 표지물(외래어)을 말한다.
6.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동안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할 수 있는 명령서를 말하며,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발부한다.



1월 한달 동안 십자말 풀이 정답을 입력해주신 국민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